

# “쾌적하고 행복하게 체육활동 누리세요”

###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착공 상무시민공원 내 내년 8월 완공 수영장 등 다목적 체육관 조성 생활권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광주시 서구는 최근 상무시민공원에서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착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공사에 돌입했다.

착공식에는 서대석 서구청장을 비롯해 이용섭 광주시장, 김태영 서구의회 의장, 시·구 의회 의원, 유관기관과 공사 관계자, 주민 등이 참석했으며 사업 경과보고, 축사, 착공 세리머니 순으로 진행됐다.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는 지난 2018년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인 '2018년 생활체육시설 설치 지원사업'

공모에 신청해 선정되면서 사업이 시작됐다.

서구에는 염주체육관, 서구 국민체육센터 등 다목적 체육시설이 조성돼 있으나 풍암동 일원에 편중돼 구민 모두가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광주의 중심부인 상무지구에 실내 체육시설이 없어 체육시설 확충의 목소리가 커졌다.

서구는 주민들에게 실시한 공공체육시설 이용 및 필요성에 대해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90% 이상이 “공공체육시설 조성이 필요하다”고 조사됨에 따라 지난해 주민공청회 등 수요조사를 거친 후 건립 계획을 수립하고, 문화체육관광부 공모 사업에 응모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110억 원으로, 2022년 8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서구는 지난해 공원 조성계획 변경과

설계공모를 통해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했으며, 올해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공사 계약발주를 통해 시공사와 감리용역사를 선정했다.

체육센터는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대지면적 3,190㎡, 연면적 총 3,337㎡ 규모로 지어진다. 지상 1층에는 5개의 레인과 워업홀, 마사지실을 갖춘 수영장이, 지상 2층에는 건강증진을 위한 헬스장과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다목적실, 유산소 운동이 가능한 조깅트랙이, 지상 3층에는 배드민턴, 탁구, 농구 등 다양한 종목의 운동이 가능한 다목적 체육관이 조성된다.

서구는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통해 시민들의 생활권 내 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커뮤니티 시설로서 복합공간의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주 서구 상무시민공원 내 들어설 예정인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조감도./서구 제공

서대석 서구청장은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를 차질 없이 건립, 쾌적하고 행복한 체육활동을 통해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더불어 소통과 화합하는 공동체 의식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선우 기자

## 지투리 소식

### 청년 공개 채용 매칭데이 성료

광주 서구는 최근 서구청 들불홀에서 관내 28개 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2021년 하반기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정규직 공개채용 매칭데이를 개최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 예방을 위해 비대면·온라인 방식으로 열렸으며, 당일 현장 접수자에 한해 대면 면접도 병행해 진행했다.

이번 매칭데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취업절벽에 있는 청년과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의 구인·구직 지원을 위해 광주 자치구 중에서는 유일하게 정부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사업비를 확보해 추진했다.

서구는 매칭데이를 위해 관내 28개 기업을 공개 모집해 선정했으며, 32명의 청년을 채용하는데 150여 명의 청년이 접수했다.

이번에 선정된 기업에는 청년 인건비의 80%를 2년간 지원하며, 청년은 정규직 채용과 함께 취업유지장려금, 자기계발비, 인센티브 등을 지원받는다.

취업준비생 A씨는 “코로나19로 취업의 기회가 적었는데 이렇게 매칭데이가 개최돼 정말 좋은 기회였다”고 말했다.

기업체 대표 B씨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중소기업들은 벼랑 끝에 몰려 있는데 이번 인건비 지원사업은 마른 거름의 단비와도 같다”며 “기업도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대석 서구청장은 “행정에서 자체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정부, 광주시, 기업 등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청년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상무2동 익명의 기부금 전달

익명의 기부천사가 광주 서구 상무2동 행복복지센터에 기부금을 전달했다.

상무2동 행복복지센터는 추석 명절을 앞둔 지난 13일 익명의 기부자로부터 “도움이 필요하거나 어려운 분들께 쓰시길 바란다”는 편지와 함께 500만 원(100만 원권 수표 5장)이 든 봉투를 전달받았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익명의 기부자는 국민지원금 지급 장구를 방문해 아무 말 없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봉투를 두고 홀연히 자리를 떠났다.

후원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상무2동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에게 지원될 예정이다.

박연주 동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소중한 나눔을 실천해주셔서 감사하다”며 “기부자의 사랑과 정성을 잘 담아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이웃에게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오선우 기자

## 농성동 케어안심주택 입주자 모집

### 통합돌봄서비스 제공

광주 서구가 어르신들이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마련한 농성동 케어안심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농성동 케어안심주택은 안전한 주거환경과 통합돌봄서비스를 제공, 병원에서 퇴원한 어르신들이 빠르게 건강을 회복하고 지역사회로의 성공적인 복귀를 도와주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곳이다.

모집대상은 총 10가구로, 입주대상자는 지난 10일 기준 현재 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만 65세 이상의 입원(21일 이상) 후 퇴원 예정이거나 최근 1년 이내 30일 이상 입원 이력이 있는 어

르신이다.

입대기간은 계약일(10월 예정)로부터 6개월이며, 보증금 없이 월 임대료와 관리비만으로 입주할 수 있다.

선정된 어르신들은 빌트인 및 고품질 편의시설 설비를 갖춘 독립된 주거공간에서 생활하며, 상주하는 직원의 1대 1 건강관리와 영양음식, 돌봄택시, 한의사 주치의 등의 통합돌봄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뿐만 아니라 커뮤니티공간에서 입주 어르신들이 함께하는 원예치료와 생활체조, 우울증 예방 등의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구성돼 있어 활기찬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다. /오선우 기자

### 상무지구 특별정비 실시

### 시가지 청결 환경 조성

광주 서구가 광주를 찾는 방문객들에게 쾌적하고 깨끗한 도심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상무지구에 대한 특별정비를 추진했다.

23일 서구에 따르면 상무지구는 광주의 대표 도심으로 평소에도 가로환경미화원이 집중 배치돼 특별 관리하는 지역이다. 하지만 사무실, 상가 및 유흥주점이 밀집된 관계로 생활폐기물의 무단투기가 만연해 인근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구는 이런 불편을 해소하고 대내외적으로 청결한 이미지를 조성하기 위해 24일까지 특별정비 기간으로 정했으며 지난 13일부터 시작한 희망근로사업 청소 참

여자 54명 전원을 상무지구에 배치해 집중 정화활동을 펼쳤다. 이 기간 동안 상무지구를 주거지역, 유흥밀집지역, 원룸 밀집지역으로 권역을 정하고 청소인력을 분산·배치해 담배꽂, 일회용 플라스틱 컵, 전단지 등을 집중 수거하는 가로변 도시미관 정비도 추진한다.

재활용품 품질개선지원사업 참여자 10명을 추가로 투입해 업무용 시설에 대해 올바른 생활쓰레기 배출방법과 배출시간 준수 등을 직접 방문형식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서구는 명절 이후에도 상무지구의 청결한 시가지 환경 조성을 위해 생활폐기물 상시 수거체계 구축, 청소 전담인력 배치, 하루 10분 내 건물 내 상가 앞 청소하기운동 전개, CCTV와 로고젝트 등을 설치해 365일 청결한 상무지구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오선우 기자



불법 현수막 철거 23일 오전 광주시 서구 광고물관리팀 관계자들이 월드컵남로에서 추석 연휴 동안 어지럽게 붙어 있던 각종 현수막을 철거하고 있다. /김태규 기자

## 주민 공론의 장 ‘마을정책총회’ 연다

### ‘서구특독’ 플랫폼 활용

### 내달 22일까지 의제 선정

광주 서구가 정책 공론의 장인 ‘2021 서구마을정책총회’를 개최한다. 지난 3년간 진행해온 마을공동체 활동의 성과와 공유 이라페스티벌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올 해는 주민 각계각층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 공감대를 넓히기로 했다.

23일 서구에 따르면 이번 총회의 주제는 크게 3가지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기후위기 대응과 마을현안 해결을 위한 마을과 공동체의 역할 ▲중간지원 조직과 마을활동가의 역할을 강화하고 제대로 된 일을 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방안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민 참여확대와 마을 일을 하기 위한 인재(마을활동가) 양성 방안 등이다.

이를 위해 서구는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서구특독’ 플랫폼 내에 만들어진 ‘서구마을정책총회’에서 오는 10월 22일까지 10대 예비의제를 선정하기 위한 주민제안을 수렴한다.

각 주제별 10대 예비의제는 공감수 순으로 선정, 추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주제별 2개의 공론의제를 선별한다. 오는 11월로 예정된 서구마을정책총회 현장에서 의제 제안자의 제안설명과 토론을 거친 후 주민위원 투표를 통해 주제별 대표의제를 선정하게 된다.

선정된 주제별 대표의제는 정책제언의 실행력 확보를 위해 ‘2022년 주민주도의 마을만들기 지원사업 종합계획’에 반영해 본격적으로 실천하게 된다. /오선우 기자

**행복 위에 지은 집! GOLD CLASS**

**골드클래스에서 사업 파트너를 찾습니다**

“개발 사업 부지를 확보하고 계신 분”  
 “개발 사업 부지를 증계하고자 하시는 분”  
 “소유하고 계신 부지의 개발 파트너를 찾는 분”

**성공을 위해 함께하는 골드클래스가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 골드클래스(주) ☎ 보광종합건설(주)

▪ 문의 : 062) 233-3999 (내선 500, 503)  
 010-3637-3735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101(화정동)